

보도설명자료 (17.10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, 유럽인증 자료배포도 안 해(10.10, 중앙일보),
 脫원전 하며 수출은 지원하겠다는 정부(10.11, 세계일보) 등

1. 기사 내용

- APR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-APR 노형의 유럽사업자 요건(EUR) 인증 승인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고 미온적 반응이라고 보도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

- EU-APR 노형의 유럽사업자요건(EUR) 인증 심사는 사업자인 한수원 주도로 진행되었고,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산업부 출입기자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기 배포한 바(10.9), 산업부의 중복적인 홍보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
- 정부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,
 -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있는 영국·체코·사우디를 대상으로 정부 고위급인사 면담 등을 통해 원전 수주 지원*을 집중 추진 중에 있음

* (영국) 한전 사장/산업부 국장·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면담(10월중, 런던)
(체코) 체코 원전특사 초청('17.10.10~14)시 정부 고위급인사 면담('17.10.10, 에너지자원실장), 원전산업 시찰 등
(사우디) 한-사우디 비전 2030 협의회('17.10.27, 서울)시 양국 장관급 논의

- 특히, 체코, 영국 등 유럽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금번 EUR 인증 승인된 결과도 홍보에 이미 활용*하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

* '17.10.10일,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-체코 원전특사 면담시, 금번 EUR 인증 승인으로 유럽지역 원전수출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 진 과장 (044-203-5330)
 김성건 사무관 (044-203-5332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